



## “마지막까지 첫 문제의식 잊지 말아야” “‘싸움의 끝’ 결정 기준은 우리의 미래”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18일 본사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파업을 왜 하게 됐는지, 파업의 동력과 대오가 어떻게 유지됐는지는 부끄러움과 사원들에 대한 무시, 두 가지로 축약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가 있어 96일동안 파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지난주 자율투쟁 기간부터 주말까지 협상이 계속됐다고 전하면서 “항상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과 목표를 생각하며 협상하고 있고 주요 쟁점도 그것과 다 연결된다. 공정보도나 인사 같은 제도 시스템 마련을 중심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걸을 조금씩 좁히도록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업사태를 풀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목표와 요구 사항 말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인사·징계 관련 문제, 조합원들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 등을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까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 위원장은 박 사장 측이 기존 약속을 번복하지 말고 협상에 진중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공 위원장은 “박 사장은 ‘나를 밟고 가라’고 이야기했었고 다른 선배들도 ‘박 사장이 있을 때 좋은 제도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고 협상을 계속 해 왔다”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 과연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나가겠다’는 (박 사장의) 말이 정말이었는지 자꾸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어디까지 만들고 어떤 제도여야 하는지는 생각이 다를 거다. 하지만 많은 구성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 크게 생각하고 가보지 않은 길도 과감하게 한번 가보도록 결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파업이 석달이 넘은 만큼 우리 파업의 성격과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공 위원장은 “우리가 파업에 나선 것은우리가 바라는 연합뉴스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이익을 핑계삼아 개인과 일부 몇몇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익과 회사의 이익을 혼동하는 선배 경영진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날 때부터 사장인 사람은 없다.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됐다면 이 회사 주인들, 사원들을 존중하고 그 뜻을 받아 회사 운영에 반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며 “당연한 일이 당연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 위원장은 “그런 상황과 우리의 정신을 잘 살려 이 싸움 마무리도 그렇게 잘 됐으면 한다”며 “벌써 100일을 나흘 앞둔 96일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싸움만 보고 투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자율투쟁 기간에 한 일을 발표하면서 연일 협상을 벌이는 쟁의대책위원회에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최춘환 조합원은 “협상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노조 집행부 장수들이 가서 담판 짓는 때라 생각한다. 조합원 개개인도 힘들겠지만 지금 집행부가 가장 힘들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항상 뒤에서 보초 서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협상 들어가서 당당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왕지웅 조합원은 “파업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 데 다들 많이 지친 거 같지만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어느 파업 노동자의 일기> IT개발부 김동욱 조합원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 서울 성곽 길을 걷고 있다. 날씨는 덥지만 짜증이 나진 않는다. 언제 부턴가 여유로움이 생겨났다.

파업을 시작할 즈음, 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이의 탄생에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파업이 나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딸이 태어났고, 일정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얼마뒤, 파업은 시작했고 회사는 급여를 끊었다.

딱히,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산후조리원비를 부모님 카드와 내 카드로 분할해 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쌓여갔다.

그런 상태로 시간은 흘러 오월이 됐고, 파업과 돈에 대한 스트레스, 사랑스러운 가족이 나의 뇌 구조에 큰 부분이 됐다.

사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일순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오월의 첫날, 자동차 사고를 냈다. 난생처음 자동차 사고. 뒤에서 박았다. 100% 자기 과실. 상대방 차는 아우디 A8.

차주가 말한다. “1억 7천만원짜리 차”라고... 하지만 난 잘 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는 아내가, 뒤에는 장

모님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입원하시고, 나와 아내는 갓난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는 것이 몸에 너무 무리가 돼 더 이상의 치료는 포기했다. 아내에게 계속 미안함이 맴돌았다.

미안함으로 하루하루 지내던 그때, 어머니께서 수술하게 됐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어머니께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보호자는 필수라고 하고 나는 외아들이다. 다행히 장모님이 퇴원하셔서 아내 옆에 있어 줄 순 있지만, 장모님도 아내도 나도 아픈 상황이었다.

일단 안 아픈 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모시고 입원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선 수술하기 전날 입에도 보호자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집으로 다시 가서 일주일 이상 병원에서 숙박할 준비를 하고 왔다.

5인실 병실에 짐을 풀었다. 먼저 입원해 계신 할머니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수술 후 경과, 후유증, 수술비 등 의사가 따로 없는 듯하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된듯했고, 보름 정도 후 병원에서 의 숙박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틀 뒤, 나는 119를 부르고 있었다. 이번엔 아내가 배가 아팠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고 엑스레이, CT를 촬영했다. 잠깐 안정을 취한 뒤 병원에서 돌아가도 된다고 해서 돌아갔다. 정확한 내용은 교수 진료가 필요하다며 3일뒤로 예약을 해줬다.

근데 이틀 뒤 또 아내의 배가 아프다. 또 119를 댔고 병원에 갔다. 다음날 교수 진료에서 담낭염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있어 수술은 포기하고 약만 먹기로 했다. 아기가 아직 분유를 먹을 수 없어 약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오월이 지나가고 유월이 됐다. 오월 한달 동안 쓴 돈이 천만원은 족히 넘었지만 돈으로 인해 내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 이성적으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별로 느낄 수 없게 된 점이 신기하다.

오히려 잘 버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가족이 고맙고, 가족을 돌볼 시간을 준 파업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느낌 웬지 오래 갖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어제는 아기의 백일잔치를 집에서 조촐하게 가졌다. 어머니가 아직 수술이 다 회복되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고 멋진 잔치를 열어 주진 못했다. 하지만 내년엔 모두가 원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잔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행복할 뿐이다.

부디 연합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